전북 대표 농촌경관마을 되다

임실 운암면 선거마을, 전북도 공모 선정 선수봉 등 스토리텔링 산책로 조성

신선이 살았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임실군 운암면 선거마을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대표적인 농촌 관광마을 일번지로 거듭난다.

군은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2018년 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 공모에서, 선거마을이 선정되어 경관조성 조성에 필요한 내년도 총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은 전라북도가 '삼락농정, 사람찾는 농촌' 실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한 농촌관광 자원화 사업이다.

첫 공모대상지가 된 선거마을은 까다로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앞으로 선거마을은 신선이 살았다는 '선무봉'과 '내리바위'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산책로를 조성하게 된다.

여기에 선거마을은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토종종자를 활용한 '전북도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이번 경관사업과 함께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임실군 운암면 선거마을이 전라북도 대표 농촌경관마을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독거노인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결손가정 및 조손가정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 숲 체험, 텃밭 운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대상자들의 자활을 돕고 있다. 군은 이번에 선정된 농촌경관사업과 슬로푸드 조성사업,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이 함께 추진되어 체험과 관광, 주민이 하나되어 행복한 대표적인 농촌마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선거마을이 전라북도 대표 농촌경관마을로 발돋움하여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인근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농촌 관광마을을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마을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통령의 글쓰기'

순창군, 강원국 작가 초청 특강

순창군(군립도서관)이 오는 15일 오후 7시부터 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청소년과 공무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원국 작가를 초청해 '대통령의 글쓰기' 인문학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책, 세상을 열다 낭독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2018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상반기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개최한다. 특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두 대통령에게 글 쓰는 법을 배운 강원국 작가를 초빙하는 만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국 작가는 두 대통령의 글이 어떤 과정을 통해 완성되며, 각 대통령의 글쓰기를 바라보는 관점과 재임기간 중 연설문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로 청중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

강원국 작가

한 2013년부터는 메디치미디어 출판사 주간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의 글쓰기'와 '회장님의 글쓰기'를 출간했으며, '대통령의 글쓰기'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2014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베스트셀러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메아리

남원시, 한발 앞선 설해대책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11월 22일)을 앞두고 남원시가 동절기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발 앞선 대응에 나섰다.

남원시는 특히, 지리산 중심도시로 눈이 많이 내리는 동부권 산악지역에 월동자재와 장비를 집중 배치해 눈과 빙판으로 인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설해대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눈이 내리면 관내 간선도로인 57개 노선(431.5㎞)에 제설장비 및 자재를 투입하고, 19개 읍면동에서는 제설봉사대원 201명이 트랙터와 1톤 트럭용 제설기 201대를 활용하여 합동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고기3거리~정령치~달궁 삼거리 구간 12㎞에 대해 차량통행을 통제한다.

진영신 건설과장은 "골목길과 인도의 제설작업에는 행정력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만큼, '내 집 및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으로 동참하는 시민의 식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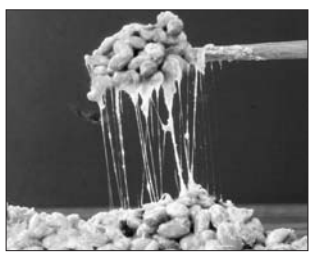
순창군 청국장, 항염증 항비만 기능성 '우수'

순창군에서 연구한 청국장이 항염증, 항비만, 항당뇨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원장 정도연, 이하 진흥원)은 14일에 열리는 2018년 국제 전통문화포럼과 성과전시회에 참여해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와 성과를 전시한다. 진흥원은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토종 발효미생물 중 기존의 해외 동물성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고초균 및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소재 발굴과 활용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전통발효식품에서 장상피세포 부착능 우수, 항염증 등 기능성을 가진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 소재를 확보해 한국인의 대표 발효식품인 청국장에 적용하는 연구다.

연구팀은 청국장의 항비만, 면역증강, 항당뇨 등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청국장 기반의 다양한 제품 개발로 기존의 부정적인 청국장의 이미지를 개선해 청국장을 세계적인 장건강 식품으로 세계화하는 기틀을 다지고 있다. 정도연 원장은 "청국장을 건강식품화해 미래 순창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발전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포부를 밝혔다.



진흥원은 지난달 30일에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장 부착능이 우수하고 프로바이틱스 활성을 지니는 고초균을 적용한 청국장의 항염증, 항당뇨, 항치매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많은 관심을 모은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민원과·자원봉사센터 업무 협약식

민원서비스 증대 목적

남원시 민원과에서는 매우 친절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3일 민원실 행복민원쉼터에서 민원서비스 증대를 위한 (사)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배종철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경님 자원봉사센터장 외 10여명이 참여했으며, 매우 친절한 남원시를 만들고, 민원서비스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와 성장에 공동참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 도로명주소 및 민원시책등 시정홍보 ▲ 필요 요청시 민원봉사 안내참여 ▲기타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 ▲ 봉사자 인권존중을 위한 비밀유지 준수 등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계기로 매우 친절한 남원시 만들기에 크게 기대 한다며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와 남원시 민원과는 항상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민원과와 자원봉사센터가 민원서비스를 목적으로 협약식을 가졌다

관촌면 꽃양배추 심어 꽃길 조성

사계절 꽃내음이 가득한 임실군 관촌면으로 오세요.

관촌면은 지난 12일 입동을 맞이하여 지역 주민과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관촌면 소재지 및 병암리 일대에 싱그러움이 가득한 꽃양배추 1,600본을 식재했다고 알렸다.

관촌면은 사계절 꽃내음이 나도록 올해 5차례에 걸쳐 팬지, 비올라, 맨드라미, 국화 등 1만6,000본 꽃을 관촌면 소재지 일원과 관촌면 주변 신병암 사거리, 오원로 산책로에 꽃길을 조성했다.

강두천 면장은 "한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계절에 강한 생명력을 가진 싱그러운 꽃양배추가 오가는 주민들의 마음에도 활력을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아름다운 거리 경관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에서도 무인헬기로 농사짓는다

일손부족 해결 · 병충해 신속방제

남원에서도 내년부터 무인헬기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남원 주생영농조합법인이 법인 최초로 무인헬기 지원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무인헬기 지원사업은 전북도가 농가의 영농비 절감 및 공동방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집단화가 300ha 이상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농협과 영농법인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생영농조합법인(대표 장기현)은 지난 9월 전북도에 사업을 신청,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난 6일 남원에서는 처음으로 무인헬기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무인헬기 지원사업에는 2019년도에 도비 4800만원, 시비 4800만원, 자부담 6400만원 등 총 1억6000만이 투자된다. 무인헬기가 운영되면 벼 병해충 방제, 일손부족을 해결, 적기영농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시는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돌발 병해충 발병률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작목별 적기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번 무인헬기 선정으로 농촌고령화에 대한 미래농업 방향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남원시는 또 "더 많은 무인헬기가 영농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와 주생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6년부터 벼농사에서 가장 어려운 방제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토론과 아이디를 모아 무인헬기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남원=김기두 기자